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창세기 8-2타락-

창세기3:1-6, 로마서3:10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저희를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사탄으로 인해 인간이 연약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한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있다. 이 50장의 창세기는 4사건과 4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4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고, 4명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오늘은 창세기의 두 번째 주제인 인간의 타락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방법이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는가. 세상의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속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 ‘나’, ‘교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창세기 3장, 근본문제의 원인을 깨야 한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 보혈의 피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반대로 모든 인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악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들은 이상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들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다.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되어버렸다.

1. 먼저 인간의 타락사건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1) 인간의 타락사건(창세기 3장사건, 원죄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어버린 사건을 인간의 근본문제라고 한다.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3장이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않으면 다시 혼돈, 공허, 흑암, 고통과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약간 다르게 붙잡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불신앙하고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6가지 불신자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있다.

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인간은 타락 이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사람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한다.

② 그럼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한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모두 말씀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③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 필요한 것이다. 사탄의 일은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2) 마귀의 자녀가 된 인간들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다.

① 노아의 홍수 전 사람들의 타락모습이다. 창세기 6장 1절-7절에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됴이라’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당시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②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창세기 12장 10절-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고 한 것이 부인을 배신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또 창세기 20장 1절-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③ 사울 왕, 다윗, 솔로몬의 삶 속에서도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울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밋세비를 빼앗았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 했지만, 나이가 들자 우상숭배하는 후궁들을 따라 자신도 이방신을 숭배했다. 열왕기상 11장 4절-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장 4절이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5절이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우상을 섬겼다. 창세기 3장에 속해있는 인간들은 한 때는 좋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언제 하나님을 배신할 줄 모르는 존재이다.

(3) 신약성경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① 로마서 1장 28절-32절 말씀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포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1장 29절-32절이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②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로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 영적인 거룩한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더러운 것'은 공동번역에서 성추행을 뜻하고 방탕함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러한 길로 가게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2. 다음으로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먼저 구약성경에 있는 복음의 흐름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① 노아의 방주도 복음을 의미 한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또한 구약시대에 행해진 모든 피 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개역: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때부터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렸다. 그 피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② 그리고 복음의 완성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 또한 신약성경에도 복음의 흐름이 있다.

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구약 모든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② 성경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복음요절이 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지만 이 더러운 인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사랑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

③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④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모든 사역을 십자가 상에서 완성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셨다.

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멸망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3)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0장 9절-10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지금 영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한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 내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오늘도 CVDIP를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머무리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언약 중에 언약은 창세기 3장 원죄의 문제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복음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이 평생 올인해야 할 비전은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237나리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전도와 선교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할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고 오직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24시간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란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질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모든 세상의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는 것을 연습해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사람과 문제 앞에서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한주간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감사만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 주시사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살 때도 해매고 죄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다가 희망 없이 남에게 피해만 주고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알아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우리 가정을 전도의 미션홈으로 만들며,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